

2020년 주요 농산물 품목별 전망과 현안

국승용·김종인·박성진·서홍석·윤종열·김원태·이형우·한은수

요약

2020년 농업생산액은 전년과 비슷,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증가로 4,500만 원에 근접할 전망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하면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1% 감소, 농가소득은 5.2% 증가할 전망

2019년산 단경기 쌀 가격 수확기 대비 상승 전망

- 2019년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공급 부족 예상으로 수확기보다 2.1% 상승한 19만 4천 원/80kg 내외 전망
- 2020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높은 쌀 가격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0.9% 감소에 그친 72만 4천 ha 수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국가 간 무역분쟁 확산, 주요 곡물 주산지에 발생하는 기상이변, 아르헨티나 주요 곡물 수출세 강화, 주요국의 ASF 발생은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20년 봄 40%의 엘니뇨 발생 가능성은 곡물 주산지의 곡물 단수 및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영향 가능성

주요 과일의 신제품 갱신·신규 식재 확대, 신제품 과일류의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 활동 강화 필요

- 과일 품종의 다각화는 과수농가 소득 향상과 과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제품 과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실질구매 연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판촉 활동 전개 필요
- 배 소포장 유통의 산지 연락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강화, 효율적인 소포장 방식 및 포장재 개발 등 정책적 노력 필요
- 다수확 품종인 설향 재배, 고설 수경 재배 확대에 따른 딸기 생산량 확대 추세, 시세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20년 엽근채소류 재배면적 전년보다 증가, 수입량은 감소 전망

- 2020년 재배면적은 태풍 피해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봄·가을 작형의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김치, 당근 등의 (관련)품목 수입량은 생산량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 전망

2020년 조생종양파 가격은 평년 대비 높지만 난지형마늘 수확기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조생종양파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전년과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확기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강세 전망
- 남도종마늘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고, 마늘 생산량도 평년보다 증가하여 난지형마늘 수확기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약세 전망

2020년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돼지 사육 마릿수 평년보다 많을 전망

- 송아지 가격 강세로 번식 의향이 높아지면서 2020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증가세가 지속되며, 한우 도축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모든 사육 의향 저하로 2020년 평균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

01

2020년 한국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1.1. 농업 생산액 전망

2020년 농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50조 4,380억 원 전망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30조 5,720억 원 전망

- 곡물류 생산액은 쌀 생산량 증가와 감자 가격 상승으로 1.3% 증가하나 채소류는 가을작형 엽근채소 가격 하락과 양념채소 생산량 감소로 3.7% 감소할 전망이다. 과실류와 특용·약용작물 생산액은 각각 2.4%,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축잡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9조 8,660억 원 전망

- 한육우 생산액은 도매가격이 하락하나 생산량 증가폭이 커 전년보다 0.7% 증가할 전망이다. 돼지는 모돈 감소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고 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생산액은 소폭(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육계 생산액은 입식 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전년보다 2.1% 감소할 전망이다. 계란 생산액은 종계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3.8% 증가하고, 오리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폭이 가격 하락폭보다 커 5.3%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고려하면 농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1% 감소할 전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 농업 생산액은 감소할 전망이다.

※ 한국은행이 하향조정 발표(2. 27.)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 2.1%를 가정하였음(2019년 11월 한국은행 전망치, 2.3%).

〈표 1〉 농업 부문 생산액(명목) 전망

단위: 십억 원

구 분	1999	2018	2019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0	2024	2029	18/99	19/18	20/19	29/19
농업 총 생산액 ¹⁾	31,973	50,051	50,428	50,438	53,751	57,954	2.4	0.8	0.02	1.4
재배업	24,035	30,270	30,705	30,572	31,530	32,410	1.2	1.4	-0.4	0.5
축잡업	7,938	19,782	19,723	19,866	22,221	25,544	4.9	-0.3	0.7	2.6
농업 총 생산액 ²⁾	31,973	50,051	50,428	50,375	53,683	57,873	2.4	0.8	-0.1	1.4

주 1) 농업전망 2020 추정치,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를 고려한 추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1.2. 농가소득과 농업활동인구 전망

2020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증가, 농가인구는 감소하나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증가 전망

2020년 농가소득은 이전소득과 농업소득 증가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4,500만 원 근접 전망

-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 증가와 18·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1,295만 원으로 전망됨.
-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도입 효과로 전년보다 15.2% 증가하고,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2.9%, 1.9% 증가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하면 농가소득은 기존 전망치보다 5만 원 낮은 4,485만 원 수준으로 전망됨.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추세와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영농포기와 농가 구성원들의 타 업종 전환 등으로 2020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0.7% 감소한 100.1만 호, 농가인구는 1.5% 감소한 224.3만 명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2%로 전년보다 0.7%p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은퇴인구 증가,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흐름이 지속되고 규모화·법인화 등 농업 구조 변화로 고용 여력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1.0% 증가한 월평균 140.9만 명 수준으로 전망됨.

〈표 2〉 농가소득과 농업활동인구 전망

구분	1999	2018	2019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0	2024	2029	18/99	19/18	20/19	29/19
농가소득(천 원)	22,323	42,066	42,646	44,897	47,468	50,349	3.4	1.4	5.3	1.7
농업소득	10,566	12,920	12,772	12,950	13,914	14,976	1.1	-1.1	1.4	1.6
농외소득	7,034	16,952	17,583	18,100	19,433	20,848	4.7	3.7	2.9	1.7
이전소득	4,723	9,891	9,927	11,438	11,578	11,790	4.0	0.4	15.2	1.7
비경상소득 ¹⁾	-	2,302	2,364	2,409	2,543	2,735	-	2.7	1.9	1.5
코로나19 반영 농가소득	22,323	42,066	42,646	44,851	47,420	50,291	3.4	1.4	5.2	1.7
농가호수(만 호)	138.2	102.1	100.9	100.1	96.0	93.0	-1.6	-1.2	-0.7	-0.8
농가인구(만 명)	421.0	231.5	227.8	224.3	208.1	191.5	-3.1	-1.6	-1.5	-1.7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21.1	44.7	45.5	46.2	50.9	55.7	1.2%p	0.8%p	0.7%p	1.0%p
농림어업취업자 (만 명)	234.9	134.0	139.5	140.9	143.1	140.5	-2.9	4.1	1.0	0.1

주 1) 비경상소득은 통계청에서 2003년부터 조사를 시작함.

자료: 통계청(「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02

2019년산 단경기 쌀 가격 수확기 대비
상승 전망

2.1. 수급 동향

쌀 생산량과 소비량 감소 추세 지속

쌀 생산량은 작황에 따른 변동은 있으나 재배면적 줄어 감소 추세 지속

- 벼 재배면적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줄어들고 있으나, 단수는 재배기술 진보와 기반시설 정비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7%씩 증가
- 2019년산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3% 적은 374만 4천 톤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2019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식료품 및 음료 제조용, 장류,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소비 감소폭이 커 전년 대비 3.0% 감소
- 2019양곡연도 기말재고는 정부 정책(식량원조 및 사료 활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7% 감소한 89만 8천 톤 내외로 추정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전년산 역계절진폭 발생과 구곡 재고 등의 영향으로 2019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18만 9,964원/80kg이었고, 최근에도 약보합세

- 2020년 2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재고 부족에도 저가 원료곡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0.1%) 하락한 18만 9,887원/80kg 수준

2.2. 수급 전망

2019년산 단경기 쌀 가격 수확기보다 상승, 2020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9% 감소 전망

2019년산 단경기(7~9월) 평균 쌀 가격은 공급 부족 예상으로 수확기 대비 2.1% 상승한 19만 4천 원/80kg 내외로 예상

- 2019양곡연도 소비감소율보다 연간 시장공급물량 감소폭(4.9%)이 더 커 공급이 부족하고, 벼 가격 대비 낮게 형성된 쌀 가격, 구곡 재고 소진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전망

202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산 재배면적 대비 0.9% 감소한 72만 4천 ha 수준

- 2019년산 수확기 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배면적 감소세 둔화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 확대, 농가소득 증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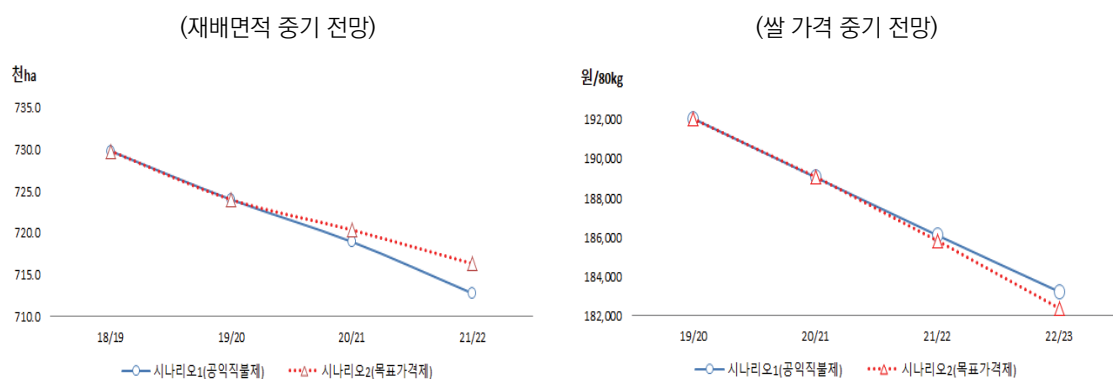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목표가격제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전망치에 비해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

- 현행 쌀 목표가격제¹⁾ 유지 시와 공익직불제 개편²⁾ 이후의 연평균(2020~2023양곡연도) 재배면적은 각각 0.6%, 0.8%씩 감소할 전망이다. 즉, 현행 목표가격제 유지 시보다 공익직불제 개편 시 재배면적 감소폭이 더 커 직불제 개편이 쌀 수급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현행 제도하에서보다 커지고 쌀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쌀농가의 소득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공익직불제 개편 시 연평균 쌀 가격(2020~2023양곡연도)은 1.6%씩 하락할 전망이나 목표가격제 유지 시 연평균 하락률(1.7%) 대비 낮을 전망³⁾
- 쌀 가격 상승 등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농가수취가격도 직불제 개편 시 2천 원/80kg 높을 전망

〈그림 1〉 재배면적 중기 전망 및 쌀 가격 중기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20 농업전망』 pp. 343-344 참조.

1) 변동직불금이 발생할 경우 익년 재배면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목표가격(2018~2022년)은 21만 4천원/80kg으로 설정하였음.
 2) 직불제 예산 확대에 따라 고정직불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위해 예상면적과 예산안을 토대로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3) 다만, 이 전망치는 향후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다고 전제하고, 단수는 최근 5개년 평년 단수(530kg/10a)를 가정하여 도출한 것이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전망치는 변동될 수 있음.

03

2020년 국제곡물 가격
소폭 상승 예상

미·중 무역분쟁의 종전 불확실성과 주요국 간 무역분쟁 사례들은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 예상

국제 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는 미·중 무역분쟁이며, 최근 세계 각지에서 무역 관련 분쟁 발생

- 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국제 콩 선물가격 변동성은 확대되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무역분쟁 반사 수혜국들의 콩 수출가격에도 영향을 미침.
- 2020년 1월 15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⁴⁾, 미국의 관세부과 보류 및 관세 완화⁵⁾를 내용으로 한 1차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이 봉합되었으나, 비례적 시정조치 권한 규정에 그침.
- 중국의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의 관세 재부과 가능성이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중 간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음.

EU에 대한 불공정 협정 제기 등 미국발 무역분쟁이 확대되는 양상

- 한국과 일본은 기존 협정을 개정한 상태이나, EU와는 2018년 7월 25일 새로운 통상협상 개시 합의 이후 '농산물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주요국의 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발 무역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임.

2020년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변동은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이어져

- 2020년 봄철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중립 수준이 예상됨에 따라 이상기상의 발생 확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2020년 봄 시즌 동안 약한 강도의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40% 수준으로 예보되고 있어, 곡물 주산지의 기상·기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엘니뇨 및 라니냐 발생이 곡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곡물 생육 시기에 엘니

4) 중국은 향후 2년간 3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하는데, 첫해에는 125억 달러, 2년 차에는 195억 달러 규모임.

5)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던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기존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1,2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완화하였음.

노 또는 라니냐가 발생하는 경우 곡물 단수는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 이하로 감소함. 곡물 단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엘니뇨보다는 라니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윤종열 외 2018).

- 라니냐 발생 시 국제 밀, 쌀, 콩, 옥수수의 평균 단수는 각각 4.0%, 1.3%, 1.0%, 0.3% 감소하고, 엘니뇨 발생 시에는 국제 옥수수, 쌀, 밀의 평균 단수는 각각 2.3%, 1.4%, 0.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Lizumi et al. 2014).

아르헨티나 수출세 강화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은 국제 곡물 수급에 부정적 영향

아르헨티나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주요 곡물 수출세 인상 결정

-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세는 186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존속과 중단을 반복해왔으며, 2015년에는 수출세 인하 및 폐지를 통하여 국제시장 점유율 및 생산량 제고를 도모하기도 함.
- 2019년 12월 주요 곡물 수출세 인상안⁶⁾이 가결됨에 따라 콩과 옥수수의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확보한 주요 곡물 수출 시장으로의 수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지역 ASF 발병으로 주요 축산물 수출국에서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예상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후, 2007년 조지아에서 재발하여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함.
-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의 경우, ASF 발병으로 인하여 2020년 돼지 사육 마릿수가 2018년 초 대비 거의 40% 감소한 수준인 2억 7,500만 마리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는 내수 공급을 위하여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과 베트남도 ASF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닭고기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수 공급 안정을 위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확대가 예상됨.
-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 및 소비패턴 변화로 주요 곡물 및 육류의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ASF의 영향으로 육류의 공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이에 주요 축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육류 수출 확대를 위한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인해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

6) 콩은 2019년 하반기 30% 수준에서 33%로 인상되었고, 밀과 옥수수는 7%에서 12%로 인상이 예상됨.

04

과일 품종 다각화,
배 포장규격 변화, 딸기 생산 확대

4.1. 과일 품종 다각화

주요 과일 재배면적 감소, 주요 과일 내 신품종 확대(샤인머스켓, 추황 등), 과실 품종 다각화

- 6대 과일(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재배면적은 2009년 이후 연평균 0.7% 감소세에 있고, 2020년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0만 5천 ha로 전망됨. 이에 반해 기타 과일 재배면적은 자자체 고소득 특화 작목 사업,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 등으로 연평균 3%의 증가세에 있음.
 - 6대 과일 면적 비중 73%(2009년)→66%(2019년), 기타과일 27%(2009년)→34%(2019년)
- 특히, 포도 신품종인 샤인머스켓의 정착과 더불어 최근 단일품종 재배편중이 심한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농가들의 신품종 갱신과 신규 식재가 확대되고 있음.
 - 사과의 경우, 후지 대체 품종인 착색계 후지, 추석 성수용인 홍로 대체 품종인 아리수, 여름철 햇사과인 쓰가루 대체 품종인 썸머킹, 중소과 품종인 피크닉, 루비에스 등이 대표적인 신품종임.
 - 황금, 화산, 추황, 조이스킨, 슈퍼골드 등은 최근 품종 갱신이 확대되고 있는 배 국내 육성 품종임.
- 과일류 품종 다양화는 고품질 과일 생산 확대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 향후 과수농가 소득 증대와 과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4.2. 도매시장 배 포장규격 소포장 전환 시행

2020년 8월 1일부터 배 도매시장 표준거래 단위가 기존 15kg, 7.5kg 상자에서 10kg, 5kg 상자로 변경됨에 따라 배의 소포장 출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

- 소포장 과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과일 중 유일하게 배는 소포장으로 출하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이는 명절 성수기 소비 비중이 높은 배 소비 특성상 선물용·제수용으로 대과가 선호되는 생산·소비 관행 때문임.
-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류는 이미 포장규격의 경량화가 정착되었고, 배의 경우, 일상 소비용으로 최근 중소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음. 도매시장 배 포장규격 전환은 과일 판매·소비의 소포장화·편의성이 증시되고 있는 소비시장 여건 변화에 기인함.

배 소포장 전환은 배의 품질 고급화, 농가수취 가격 제고, 소비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농촌진흥청(2018. 12.) 『배의 거래특성과 출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경매사 등 유통종사자는 배 소포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 포장규격은 3~5kg 상자(30%) 또는 5~7.5kg 상자(48%) 포장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포장단위를 전환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소비촉진(4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거래가격 상승(35%), 신뢰성 제고(16%) 등으로 나타남.
- 이처럼 배 소포장 전환은 배 구매 편의성 향상으로 소비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출하 중량 대비 경매가 상승효과가 있어 농가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음. 산지에서 배 소포장 유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효율적인 소포장 방식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함.

4.3. 딸기 다수확 재배방식 및 품종 재배 확대

딸기는 최근 3년간(2017~19)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토경 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많은 고설 수경 재배면적이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

- 2019년 고설 수경재배면적은 2,050ha로 전체 딸기 재배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2019. 12.), 기존 딸기 재배 농가 중 최근 3년간 고설 재배로 전환한 농가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고설 재배면적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 있는 농가는 7%로 조사되었고, 현재 토경 재배 농가 중 고설 재배로 전환하려는 농가도 11%로 나타나 고설 재배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당도, 경도 등이 우수한 딸기 신품종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다수확 품종인 설향 재배 편중 심화

- 설향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중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농가는 86%, 현재보다 늘리겠다고 한 농가는 9%로 조사됨. 반면, 설향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 품종을 재배하겠다는 농가는 5%에 불과해 향후 다수확 품종인 설향 재배 편중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신품종 딸기 재배기술 확대 보급 및 판로 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판촉 활동 강화 필요

- 딸기 농가가 설향에 편중된 재배를 지양하고 신품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 체계를 확대하고,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딸기의 당도, 신선도 및 아삭함을 중시 여기는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도록 품종 개발·보급이 필요하고, 소비기반 구축 차원에서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실질구매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홍보·판촉 활동도 강화해야 함.

05

월동무 가격 하락, 상반기 김치 수입량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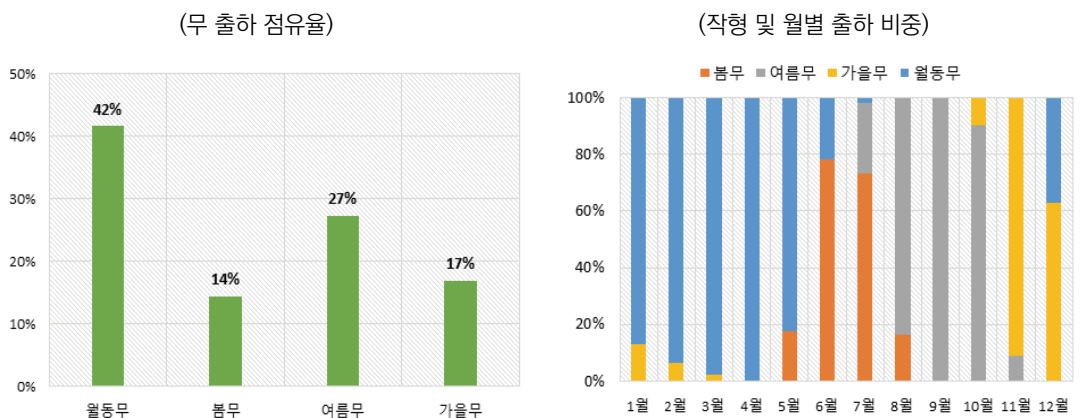
2020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봄·가을 작형의 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8% 증가한 6만 250ha 전망

- 봄 작형 재배면적은 2019년산 겨울 작형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고랭지 작형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감소하겠으나, 태풍 피해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가을·겨울 작형은 증가할 전망이다.
- 2020년 엽근채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375만 톤으로 예상됨.

월동무 2월 이후 출하 확대로 상반기 가격 약세 전망

- 월동무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6,475ha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재배면적 증가로 가락시장 전체 무 출하량 중 월동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2%(평년 기준)까지 증가하였고,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면 차기 작형인 봄·고랭지 출하기에도 출하가 이루어짐. 월동무 출하 비중이 높아지면서 타 작형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월동무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가 요구됨.
- 2019년산 월동무는 파종·생육기 태풍 피해로 파종이 지연되어, 2020년 2월 이후 출하가 집중되고,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단수도 증가하여 상반기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봄철에도 기상여건이 좋을 경우 차기 작형 출하기까지 출하가 늦춰져 무 가격은 약세가 계속될 수 있음.

<그림 2> 무 작형 및 월별 가락시장 출하 비중



주: 출하 비중은 2014~2018년 5개년 평년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020년 엽근채소와 채소 가공품 수입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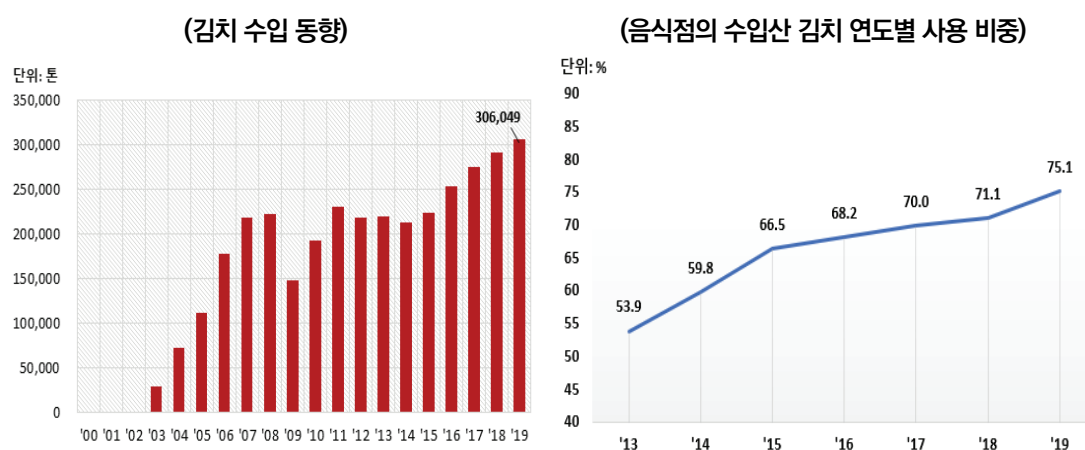
국내 고정 수요처가 형성되면서 최근 김치, 당근 수입량 증가

- 최근 주산지의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기상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격 변동성도 커지면서 김치 수입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0만 6천 톤까지 확대되었음. 국내 고정 수요처 증가로 김치 수입은 월평균 2만 3천 톤씩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수입산 김치 사용 비중은 2019년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당근 수입량은 2015년 이후 10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9년에는 10만 5천 톤이었음.

2020년 엽근채소와 김치 등 채소 가공품 수입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2020년 엽근채소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4분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김치공장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한국으로의 엽근채소 가공품 수출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입량 감소가 예상됨.
- 1~2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48,939톤)보다 8% 감소한 45,079톤이었음. 당근 1월 수입량은 전년(7,466톤)보다 15% 증가한 8,566톤이었으나, 2월은 전년(6,525톤)보다 10% 감소한 5,897톤이었음.

〈그림 3〉 김치 수입량, 수입산 김치 사용 비중 추이



자료: 관세청, 농업관측본부 음식점조사 결과(2013~2019년).

06

양파·마늘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의무자조금 추진

6.1. 양념채소 수급 전망

2020년 양념채소(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재배면적 전년보다 감소 전망

2020년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8만 5,400ha 전망

-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휴경하거나 시금치, 콩, 벼, 사료작물, 브로콜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여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평년 단수를 가정한 2020년 양념채소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24% 감소한 189만 톤으로 예상됨.

양파 재고량 전년보다 적고 조생종양파 재배면적 감소로 수확기 가격 평년 대비 강세 전망

- 2019년산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저장·입고량이 전·평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높은 부패율로 출고량이 늘어 2월 말 기준 재고량은 전년보다 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양파 표본농가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 2020년산 조생종양파 재배면적은 2019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6%, 평년보다 7% 감소한 2,683ha로 조사됨. 2020년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17만 8천 톤으로 전년보다 18%, 평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양파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고, 조생종양파 생산량이 전년과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생종양파 수확기 평균 도매가격은 평년(862원/kg, 상품 기준)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됨.

남도종마늘 재고량 평년보다 많고 재배면적 늘어 수확기 가격 평년 대비 약세 전망

- 2019년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저장량이 증가하였으나 부패율 상승에 의한 출고량 증가로 2월 말 기준 재고량은 전년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추정됨. 5월 이후 2019년산 마늘 총 재고량은 평년보다 적으나 김장수요 감소로 출고량이 적었던 남도종 마늘 재고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마늘 표본농가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9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9% 적지만 평년보다 2% 많은 2만 5,090ha로 조사됨. 2020년 마늘 생산량은 평년 단수

를 적용할 경우 31만 5천 톤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남도종마늘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고, 마늘 생산량도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난지형마늘 수확기 도매가격은 평년(5,580원/kg)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건고추, 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020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2019년산 고추 생산량 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5%, 평년보다 2% 적은 3만 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수확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1만 2,1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6.2. 마늘·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의무자조금 추진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생산자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 의사결정을 통한 수급조절기능 강화

7월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추진

- 2019년산 마늘·양파 과잉 생산으로 산지폐기, 수매비축, 소비촉진,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 지지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기존의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데 전국 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 양파생산자협회가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의무자조금 승인조건⁷⁾ 충족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재배면적(마늘 2만 291ha, 양파 1만 5,796ha)의 50% 초과를 목표로 주산지 시·군 설명회와 함께 의무자조금 회원 가입 신청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립 초기(최대 5년)에 자조금 지원사업비 매칭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농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의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임.
- 2020년 7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해서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자조금 거출 방법과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출하규격 설정 등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함.

7)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따르면 의무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은 품목농가수의 50%를 초과하거나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이 해당 품목의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도록 규정(로엔비)

07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 돼지 사육두수 평년보다 많아

7.1. 쇠고기

가임 암소와 송아지 생산 증가로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전망

-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 번식 의향이 높아 2019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09만 5천 스탁로였음. 2020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20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가임 암소와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로 2019년보다 3.7% 증가한 316만 7천 마리로 전망됨.
- 한우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고 거세우 출하 예정 마릿수가 증가하여 2020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9년보다 5.4% 증가한 25만 9천 톤으로 전망됨. 2020년 쇠고기 수입량은 한우고기 도매가격 하락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2019년보다 3.1% 감소한 41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2020년 쇠고기 공급량은 국내 생산은 늘어나지만, 수입량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67만 2천 톤, 1인당 소비가능량은 13.0kg으로 전망됨.

7.2. 돼지고기

모돈 사육 의향 줄어 돼지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하나, 평년보다 많은 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가격 약세로 모돈 사육 의향이 줄어 2020년 모돈 사육 마릿수는 201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이 줄어 2019년보다 적지만 평년(1,100만)보다는 많은(2.1% 증가) 1,123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면서 2020년 도축 마릿수는 2019년(1,781만 마리)보다 0.1~0.9% 감소하나, 평년(1,682만 마리)보다 4.9~6.1% 증가한 1,765~1,780만 마리로 전망됨.
- 2020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산 가격 약세와 국제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42만 1천 톤)보다 14.5~21.6% 감소한 33만~36만 톤(평년 38만 6천 톤보다 감소)으로 전망됨.

7.3. 주요 이슈

국내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지속, 농장 단위 차단 방역 철저히 해야

- 사육 중인 돼지의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10월 9일까지 총 14건 발생하였음. 야생 멧돼지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경기 연천에서 처음으로 확진되어, 2020년 2월 22일 강원 화천에서의 발생까지 257건(2월 24일 기준)임.
- 사육 중인 돼지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 멧돼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차단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중국 내 ASF 발생 이후 돼지고기 수급 불균형 초래, 국제 육류 시장 변동성 확대

-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모돈은 38% 감소하였음(2019년 10월 기준).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중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8년 103건, 2019년에는 63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음(2020년 2월 25일 기준).
-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불균형으로 국제 육류 가격 상승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국내 육류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201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11-1543000-000128-10.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2018. 12. 『배의 거래특성과 출하 전략』.
- 서홍석·김충현·김문희. 2018.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M1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종열·박지원·신기석·강두현. 2018.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Lizumi, T., Luo, J. J., Challinor, A. J., Sakurai, G., Yokozawa, M., Sakuma, H., Brown, M. E., and Yamagata, T. 2014. "Impacts of El Niño Southern Oscillation on the global yields of major crops." *Nature Communications* 2014(5): 1-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E04-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main.do>>. 검색일: 2020. 2. 20.
- 로앤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1565>>. 검색일: 2020. 2. 20.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0. 2. 20.
- 통계청. <<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0. 2. 17.

KREI 현안분석

감 수 김미복 연구위원 061-820-2323 mbkim@krei.re.kr
내 용 문 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72호

2020년 주요 농산물 품목별 전망과 현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3.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